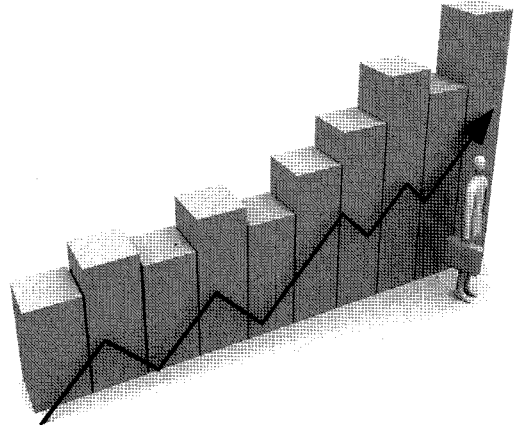


중소·중견기업 현장 생산성 획기적으로 높인다.

생산성 향상으로 환율전쟁 및 유가 등 비용상승 극복

개요

- 정부는 최근 원화절상 및 유가·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극복하고, 중저가 신흥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[중소·중견기업 생산성 혁신 전략]을 수립·발표하였음
 - 지식경제부(장관 : 최경환)는 10.26(화)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 대책을 보고
 - 이번 대책은 9월말 발표한 [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]의 후속조치로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
- 특히, 이번 전략은 최근의 [환율전쟁]과 관련, 원화절상이 계속될 경우 수출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여 생존을 위해서는 선제적 생산성 향상이 궁극적 해결책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
 - '85년 9월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이 엔화 절상에 생산성 향상으로 대응한 역사적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재의 [환율전쟁]은 결국 [생산성 향상 경쟁]으로 귀결될 것임
 - 생산성본부가 '95~'08년간 250개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, 생산성 10% 향상시 유가 45%나 원자재가 20% 상승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또는 환율 11% 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를 각각 흡수 가능함



중소·중견기업 생산성 혁신 전략의 주요 대책

- 동 전략은 ① 중소·중견기업의 자생적 생산성 혁신, ② 기업 네트워크 생산성 혁신(생산성 3.0), ③ 생산성 향상 기반 혁신 등 3대 혁신방향, 9개 정책과제를 제시

〈중소·중견기업 생산성 혁신 전략〉

3대 혁신방향	9개 정책과제
① 자생적 생산 혁신	가. 기업 수준별 생산성 혁신 프로그램 추진 나. 생산 현장의 기술역량 제고 다. 스마트 매뉴팩처링 가속화
② 네트워크 생산성 혁신(생산성 3.0)	가. 대·중소기업 생산성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 나. 대기업의 자발적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활성화 다. IT 협업 네트워크 확산
③ 생산성 향상 기반 혁신	가. 현장 혁신인력의 전문교육 강화 나. 생산성 친화적 환경 조성 다. 생산성 혁신 지원기반 확충

1. 중소기업 맞춤형 제조혁신방법 개발·보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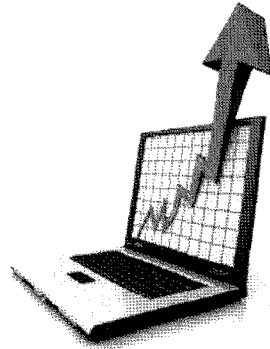
- 중소기업이 자기 수준에 맞게 생산성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 현실과 중소기업의 수준을 고려한 [중소기업 맞춤형 제조혁신방법]을 개발·보급할 계획임
 - 제조혁신방법은 Q(품질)·C(원가)·D(납기)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·자원(공정, 설비), 관리 시스템 등 제조 현장을 개선·최적화하기 위한 혁신 노하우 체계*
 - ※ 제조혁신 이론·기법, 측정·분석방법, 매뉴얼, 체크리스트, 사례 등으로 구성
 - 우리와 다른 제조업 환경에서 개발된 외국기법은 중소기업이 활용하는데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를 유발하고 있어,
 - 근로 문화, 근로자 의식, 생산거래 환경, 공급망 차이 등 우리 산업 현실과 중소기업 수준에 맞는 제조혁신방법의 개발을 추진하게 됨
 - 그간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혁신을 위해 학계와 현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제조혁신방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, 정부가 체계적으로 개발·보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임
 - ※ 일본 : 도요타, 소니 등 15개사가 참여, 기업수준별 단계(1 4 Level)를 반영하여 일본 제조업 특성에 맞는 JMS(Japan Management Standard) 개발



- 정부는 국내·외 제조혁신 전문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'11년부터 기업 수준, 업종별 특성, 전·후방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요 업종별·기업규모별로 제조혁신방법을 개발하는 한편,

- [현장 진단 → 혁신방법 수준 조정 및 제공 → 활용 교육 → 사후 관리] 등 기업 수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

- '11년 30개 업체에 대해 시범 제공 후, '12년부터 '15년까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5,000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산할 계획임



2. 제조·공정 혁신 R&D 지원 대폭 확대: '10년 9% → '14년 12%

- 고효율·고품질·무결함 생산에 필요한 제조·공정·장비 기술 개발 강화와 단기 생산기술 애로 해소를 위해 제조·공정 혁신 R&D 지원비율을 '10년 9%에서 '14년 12%까지 단계적으로 확대
- 우선, 내년에 [제조·공정 원천기술 개발 로드맵]을 수립하여 중장기 전략 하에 제조·공정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
- 이와 함께, 자체적으로 생산기술 개발 수요를 R&D 과제화하기 어려워 그간 R&D 지원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[현장밀착형 R&D 지원시스템*]을 구축하기로 하였음
 - ※ 생기원을 중심으로 중진공, 산단공, TP 등 지역 거점기관이 “현장에서 발로 뛰어” 기업의 생산기술 애로를 발굴, 대학·연구소 등과 함께 R&D 과제로 만들어 주고, 관련 R&D 프로그램에 신청까지 하는 원스톱 지원체제

3. 스마트 매뉴팩처링 실현을 위한 제조 현장의 IT 활용 가속화

- 제품 원가의 95%를 좌우하는 제품·공정 설계 등 제조준비 단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[세계 최초 온라인 제조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]를 '15년까지 주조 등 6대 뿌리산업과 전자 등 5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,
- '12년까지 자동차 등 10대 업종, 1천개 유형의 공정 설계·분석 시뮬레이션 모델도 구축·제공하기로 함
 - ※ 年 1천개 업체, 5천개 제품에 제공시 약 2,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기대
- 또한 그간 단순보급형 SW 지원으로 기업의 정보화가 미흡한 점을 감안, 기업 여건과 현장 수요 등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SW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구축, 임대, 선별 구매 등 다양한 지원을 전개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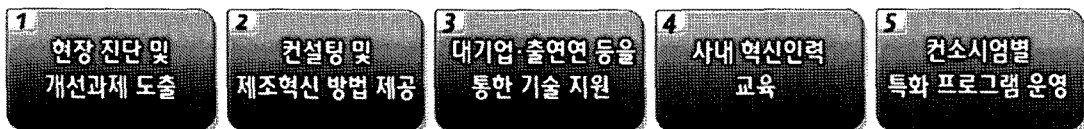
구 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기존) SW 패키지 단순 보급 → (개선) 기업 맞춤형 SW 구축 - 지원규모 : '10년 144개사 → '11년 160개사 이상
임 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온라인 마켓플레이스」 구축 및 임대료 지원 확대
선별 구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기업을 위한 「제조용 App Store」 구축

고가 SW 패키지 구매 부담 경감

〈SW 활용지원계획〉

4. 제조업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[생산성 3.0] 추진

- 최근 글로벌 시장경쟁은 기업 단위의 경쟁이 아닌 네트워크 단위의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어 기업 단위의 생산성 향상을 넘어 기업 네트워크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
 - 기존의 설비 자동화, 신규장비 도입 등 작업장 수준의 하드웨어적인 생산성 혁신(생산성 1.0)과 혁신기법 활용 등 소프트웨어적 혁신을 통한 기업 단위의 생산성 향상(생산성 2.0)을 넘어,
 - 공급망(Supply Chain)을 구성하는 기업 네트워크 전체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생산성 혁신활동(생산성 3.0)이 필요한 시점임
- 이를 위해 [생산성 파트너십 프로그램]을 추진하여 기존 [대기업 +1차 협력사] 네트워크를 [대기업 +1·2·3차 협력사] 네트워크 협력으로 심화·확대해 나가기로 함
 - 생산성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2차 이하 협력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, 참여 대·중소기업간 합리적인 [생산성 향상 성과공유협약]을 체결할 경우 - 3년간 2차 이하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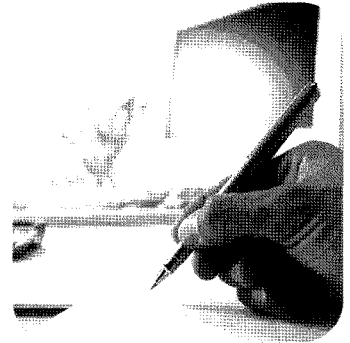


〈종합 지원 프로그램(안)〉

- '11년 5개 컨소시엄에 대해 시범 지원하고, '12년부터 30대 대기업으로 확대하여 연평균 1,200개사를 지원할 예정임
 -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차 이하 협력사 지원 자금을 대한 7% 세액공제, 상생협력대상 신청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



- 또한 기술·노하우 이전, 교육 등 대기업의 자발적인 중소기업 생산성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업종별 자체 [생산성 향상 지원재단*(가칭)] 설립(‘11년 기계분야 시범 추진)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
 - ※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2차 이하 협력사의 기술지도·교육 등 생산성 향상 지원



- 전·후방 협력사간(대·중소기업), 동종 중소기업간 IT 협업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임
 - 대·중소기업간 IT 협업시스템 구축 지원은 현재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중심에서 향후 2차 이하 협력사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한편,
 - 동종기업간 실시간 협업포탈 구축은 현재 금형·자동차에서 향후 플랜트·전자 등 전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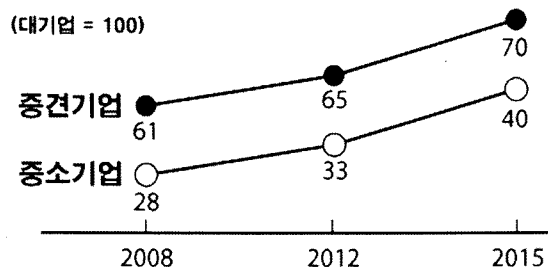
5. 생산성 향상기반 확충

- 마이스터고 등에 [제조혁신 교과과정*] 개설, 생산성본부에 [제조혁신 블랙벨트 과정**] 신설 등을 통해 ‘11~‘15년까지 제조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기업 생산성 파이오니어를 30,000명 양성할 계획
 - ※ ‘11년 10개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, 4개 MOT 운영대학에 개설, ‘12년부터 단계적 확대
 - ※※ 5년간 1만명에 대해 교육비 최대 50% 지원
- 생산성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생산성에 대한 평가·관리 체계 구축, 능률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
 - [기업 현장 생산성 통계 개발], [중소·중견기업용 자가진단시스템] 운영 등 현장 생산성 평가·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,
 - 고용보험기금 보조 등을 통한 Smart Work 확산, 생산성 연동임금 표준모형 개발·제공 등 업무능률 제고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
- 생산성 "3대 혁신"의 추진을 위해 생산성본부내 생산성연구소를 [제조혁신 추진센터]로 확대·개편하고,
 -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받을 때만 효과가 있다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, 지원 프로그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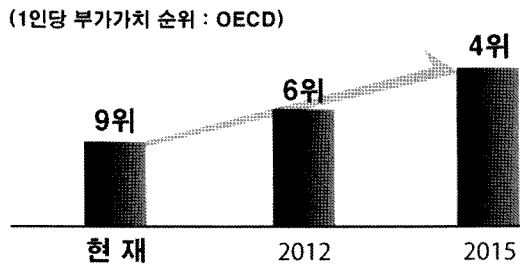
종료 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기술·경영·IT 등 분야별 전문인력 사업과 연계하여 [현장밀착형 A/S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

기대효과

- “세계 일류 제조강국 도약”을 비전으로 금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기업과 중소·중견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크게 완화
 - 현재 대기업 대비 각각 61%, 28%인 중견·중소기업의 생산성이 '15년까지 70%와 40%로 제고
- 이를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의 자생력이 향상되어 산업 전반의 경쟁체질 및 제조업 네트워크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고,
 - 현재 OECD 국가 중 9위 수준의 1인당 부가가치 순위도 '15년에는 4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

〈대·중견·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완화〉



〈제조업 경쟁력 강화〉